



라이다(LiDAR) 기반 인지 AI 기술로 스마트 인프라 혁신을 이끄는 '뷰런테크놀로지'

뷰런테크놀로지는 2019년 설립된 라이다 기반 인지 AI 전문 기업으로, 센서가 수집하는 3차원 포인트클라우드 데이터를 분석해 사람과 차량, 공간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이해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및 교통 인프라 영역까지 사업 확장에 다가서고 있다.

뷰런의 주력 제품인 스마트 인프라 솔루션 '룩아웃(Lookout)'은 도로 교통량과 이동 흐름 분석은 물론, 보행자 위험 구역 진입 감지, 교차로 실시간 신호 최적화 연계 등 실제 관제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완성형 솔루션이다. 나아가 공항·철도역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파 밀집도 및 대기열 관리, 산업 현장의 작업자 안전관리까지 폭넓게 활용된다. 특히 CCTV와 달리 얼굴을 촬영하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 부담이 없고, 조명이 없는 야간이나 악천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것이 핵심 강점이며,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6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뷰런은 고객이 원하는 인지 AI를 데이터 수집부터 학습·검증·현장 적용까지 일괄 지원하는 '자율형 AI 파운드리'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데이터 구축 지원 도구 'Prospector'와 데이터 가공·개발 플랫폼 'X Factory', 모빌리티 솔루션 'Copilot'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객의 AI 개발 부담을 대폭 줄여준다. 서울 올림픽대로 교통 모니터링, 구룡지하차도 돌발상황 분석, PEAK FESTIVAL 인파 안전 관리, 일본 스마트폴 사업 등 다채로운 국내외 실증 경험을 보유한 뷰런테크놀로지는 오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참가를 계기로 글로벌 스마트 인프라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라이다 인지 AI로 현장을 이해하고, 더 안전한 교통과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 뷰런테크놀로지 김재광 대표



뷰런테크놀로지를 설립하게 된 계기와 현재 주력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Monthly ITS」 독자들에게 회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뷰런테크놀로지는 2019년 설립된 라이다(LiDAR) 기반 인지 AI 전문 기업입니다. 라이다가 수집하는 3차원 데이터를 분석해 사람과 차량, 주변 공간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이를 교통과 도시 안전,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제공합니다.

창업의 출발점은 인지 기술을 실제 생활 속 안전으로 연결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라이다가 주변의 거리와 형태를 측정하더라도, 그 데이터에서 무엇이 사람이고 차량인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해석해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해석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해 왔고, 정밀한 인지가 필요한 모빌리티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스마트 인프라로 넓혀 왔습니다.

현재 ITS 분야에서 주력하는 제품은 스마트 인프라 솔루션 룩아웃(Lookout)입니다. 도로에서는 교통량과 이동 흐름을 분석하고, 보행자가 차도나 위험구역으로 진입하는 상황을 감지합니다. 공항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인파와 대기열, 공간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작업자와 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안전관리와 운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모빌리티용 인지 솔루션 Copilot, AI 데이터 구축과 개발을 지원하는 X Factory 및 Prospector를 통해 고객이 인지 AI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이미 완성된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와, 자체 서비스에 필요한 AI를 개발하는 경우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ITS 관계자 여러분께는 뷰런을 현장의 움직임을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바꾸는 기술 파트너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교통 운영자와 시설 관리자가 필요한 상황을 제때 파악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뷰런의 핵심 기술인 '라이다 기반 인지 AI'는 주변의 사람과 차량을 파악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며, 뷰런만의 강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해 주변 물체의 거리와 형태를 측정하고, 이를 수많은 점으로 이루어진 3차원 데이터인 포인트클라우드로 표현합니다. 뷰런의 인지 AI는 이 데이터에서 사람과 차량 등의 객체를 검출 분류하고,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연결해 이동 속도와 방향, 궤적을 분석합니다. 센서가 수집한 점들을 운영자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뷰런의 강점은 자체 인지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Lookout이 이미 고객 현장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사람과 차량을 인지하는 핵심 기술부터 교통량과 이동 흐름 분석, 운영 시스템과의 연동까지 제품으로 구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도입해, 뷰런의 인지 기술을 교통 운영과 공간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Lookout은 다양한 라이다 센서와 컴퓨팅 환경에 대응하며, 고객의 설치 여건과 운영 목적에 맞춰 구성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API나 SDK를 통해 기존 관계 플랫폼과 연결할 수 있어, 고객이 사용 중인 시스템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인 만큼, 현장별 요구에 맞춘 기능 개선과 적용 범위 확대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NextRise 2026 Global innovator 수상한 뷰런테크놀로지

스마트 인프라 솔루션 '룩아웃(Lookout)'은 교통 흐름 파악이나 보행자 안전 등 실제 교통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으며, 현장 운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Lookout은 차량과 보행자의 움직임을 정량화해 도로 운영과 안전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통량, 속도, 이동 방향과 궤적을 함께 분석하면 어느 시간대에 차량이 집중되는지, 어느 구간에서 흐름이 느려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운영자가 혼잡 상황을 판단하고 교통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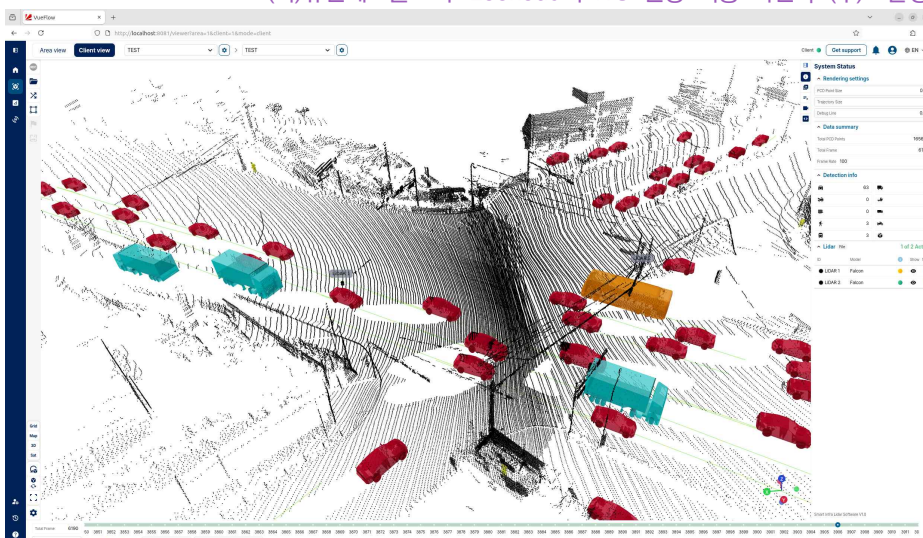
스마트교차로에서는 방향별 통행량과 차량 흐름, 보행자 이동 정보를 신호 운영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신호 최적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런은 필요한 인자·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고, 실제 신호 제어는 연계된 신호 시스템에서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교통량이 달라지는 시간대와 보행 수요를 함께 살펴보면 현장 상황에 맞는 운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 측면에서는 횡단보도 주변과 차도, 보행자 보호구역 등에 관심 구역을 설정하고 진입·체류·이탈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는 역주행이나 비정상 정차 등 설정된 조건에 해당하는 상황을 확인해 관제시스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용 중인 안내 장치나 경보 시스템과 연동하면 관리자가 대응해야 할 상황을 더 빠르게 확인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이 함께 발생하는 공항, 환승 거점, 행사장에도 Lookout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역별 인원과 밀집도, 이동 흐름을 분석해 보행 공간의 혼잡을 파악하고, 대기열이 형성되거나 인원이 집중되는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내 인력 배치와 동선 운영을 검토하고,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의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작업자와 차량이 함께 이동하는 구역의 진입과 접근 상황을 분석하고, 고객이 보유한 경광등·스피커·운전자 단말 및 통합 관제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가 기존 대응 체계 안에서 활용되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담당자가 모든 화면을 계속 살펴보는 부담을 줄이고,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좌)부런테크놀로지 'Lookout'의 ITS 현장 적용 화면 | (우)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기념 촬영



구룡지하차도 실증 등 교통·도시 안전 분야에서 진행한 사업 중 기억에 남는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변화나 배운 점을 말씀해 주세요.

국내에서는 구룡지하차도와 서울시설공단의 올림픽대로 교통 모니터링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구룡지하차도에서는 라이다를 활용해 차량의 위치와 움직임을 3차원 데이터로 수집·분석하고, 관제시스템과 연계했습니다. 지하차도와 터널은 차량 흐름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돌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공간입니다. 차량의 움직임을 연속된 데이터로 분석하면 시간대별 교통 흐름을 비교하고, 혼잡 상황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구간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과 진행한 올림픽대로 사업에서는 도로에 라이다를 설치해 차량 통행량을 분석하고, 이상 상황 탐지를 위한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흐름을 데이터로 파악해 도로 운영과 관제에 활용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두 사업을 통해 서로 다른 도로 환경에서 필요한 교통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존 관제체계에 연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도시 안전 분야에서는 2026년 5월 PEAK FESTIVAL 현장에서 인파 밀집도 검출 기술을 실증했습니다. 무대 시설물과 관람객이 함께 있는 야외 환경에서 사람들의 분포와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이는 차량 중심의 교통 모니터링에 활용해 온 공간 인지 기술을 다중이용시설과 행사장의 인파 안전관리로 확장한 경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일본의 스마트폴 기반 사업에 라이다 인지 솔루션을 공급했습니다. 스마트폴에 설치된 라이다를 통해 주변의 사람과 차량을 인지하고, 이동 흐름을 파악하도록 지원하는 사례입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되는 인프라에 공간을 이해하는 기능을 더하고, 이를 교통과 보행 공간의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들과 논의하면서 확인한 중요한 요구 중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공간의 혼잡과 이동 흐름을 파악하고 싶지만, CCTV를 통한 얼굴 영상의 수집과 보관에는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라이다는 얼굴을 촬영하지 않고도 사람의 위치와 이동 방향, 체류 시간과 밀집 정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요구를 고려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고객에게 중요한 선택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조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환경에서의 활용성도 라이다의 강점입니다. 라이다는 스스로 레이저를 발사해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주변 조명에 의존하지 않고 객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조명 설치가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이나 야간에도 대상의 접근을 확인해야 하는 군부대 외곽 경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탐지 거리와 지형, 시설물에 의한 가림 등을 고려해 센서 배치와 감지 구역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얻은 가장 큰 배움은 인지 기술이 고객의 운영 목적과 연결될 때 제품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센서와 소프트웨어, 운영 기준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센서의 설치 위치와 관찰 범위에 따라 확보되는 데이터가 달라지고, 같은 데이터라도 운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는 교통 흐름과 신호 운영을 위한 정보가, 공항에서는 혼잡도와 대기열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을 이벤트로 볼 것인지, 관제 화면에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기존 시스템과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것인지를 운영자와 함께 정해야 기술이 실제 업무에 연결됩니다.

Lookout은 2026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저희는 자체 인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실제 현장에 공급하고 적용해 온 경험과 혁신제품 지정 성과를 공공 인프라의 적용 기회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도입 이후에도 현장별 운영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 요구, 다양한 설치 환경에 대응하며 고객의 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최근 제시하신 ‘자율형 AI 파운드리’라는 사업 방향은 어떤 의미이며, 이를 통해 고객의 AI 개발과 활용을 어떻게 돕고자 하는지 쉽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율형 AI 파운드리는 고객이 원하는 인지 AI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부터 적용까지 지원하겠다는 사업 방향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가 설계된 반도체의 생산을 지원하듯, 뷰런은 고객의 요구를 바탕으로 필요한 데이터와 AI 모델, 실행 환경을 연결해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새로운 교차로에 AI 관제를 도입하려면 센서 설치만으로 모든 준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 속 객체에 학습용 정보를 붙이는 어노테이션을 수행한 뒤,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고 현장 장비에 맞춰 적용해야 합니다. 운영 환경이 바뀌면 추가 데이터와 개선 작업도 필요합니다. 각각의 과정을 고객이 따로 준비해야 할 때 생기는 개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저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뷰런은 Prospector를 통한 데이터 구축, X Factory를 통한 AI 데이터 가공과 개발 지원, Copilot과 Lookout을 통한 현장 적용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X Factory는 3차원 포인트클라우드의 어노테이션과 데이터 품질 확보를 지원하며, 전체적으로는 데이터 수집부터 학습·검증·배포까지 이어지는 개발 체계를 지향합니다.

고객은 준비된 Lookout을 도입해 필요한 관제 기능부터 사용할 수도 있고, 자사 서비스에 맞는 객체나 운영 환경에 대한 개발 협력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센서와 컴퓨팅 환경을 함께 고려하면 통합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일찍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관계는 도입 이후에도 운영 경험이 다음 개선으로 이어지는 기술 협력입니다. 고객의 목적과 데이터 활용 조건에 맞춰 필요한 지원 범위를 정하고, 새로운 장소나 서비스로 적용을 확대할 때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도록 돕겠습니다.

CEO로서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뷰런은 저의 첫 창업입니다. 연구원으로 일하며 기술을 깊이 파고드는 데는 익숙했지만, 회사를 경영하는 일은 전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연구자로서의 사고방식과 경영자로서의 판단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에서는 문제를 충분히 검증하고 가장 좋은 답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쓰는 것이 미덕입니다. 반면 경영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제때 결정해야 하고, 기술의 완성도와 시장의 타이밍, 회사의 자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초기에는 기술적으로 더 다듬고 싶은 마음과 고객에게 먼저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완벽한 답을 기다리기보다 현장에서 검증 가능한 단위로 먼저 실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라이다 인지 기술은 정해진 조건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더라도, 설치 위치와 날씨, 주변 구조물, 운영 방식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능 수치만으로는 고객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배웠고, 이후 데이터를 학습과 검증에 다시 반영하고 운영자와 활용 기준을 함께 정하는 과정을 제품의 일부로 보게 되었습니다. 기술을 잘 만드는 것과 고객이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체감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도전은 조직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소수의 연구 인력으로 시작한 회사가 개발, 사업,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갖춘 조직으로 성장하면서, 제가 모든 일을 직접 챙기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각 분야에서 저보다 잘하는 동료에게 권한을 맡기고, 회사가 가려는 방향과 판단 기준을 분명히 공유하는 것이 CEO의 역할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매일 배우는 과정 중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확인하고,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동료와 함께 해결한다는 원칙은 연구원 시절부터 이어온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회사 운영에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뷰런테크놀로지의 기업문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뷰런의 기업문화는 각자의 전문성에 몰입하면서, 그 결과를 동료와 연결해 고객 현장에서 완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술의 작은 차이가 안전과 운영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문제의 원인을 끝까지 확인하고 근거를 바탕으로 개선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하는 방식은 Deliver Trust, Lead, Together, Connected Expertise, Share Clearly, Bold Innovation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가치에 담겨 있습니다. 결과의 완성도로 신뢰를 쌓고,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동료와 함께 해결을 시작하며, 전문 지식을 전체 시스템의 성과로 연결하자는 뜻입니다. 의견과 피드백은 구체적인 근거와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나누고,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시도도 장려합니다.



매월 진행되는 Activity Day를 활용해 다양한 사내 동아리 활동을 즐기는 뷰런테크놀로지 임직원

구성원의 성장을 위해 업무 관련 도서와 외부 교육·세미나, 특허 등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 타운홀과 랜덤 런치, 매월 운영하는 Activity Day는 서로 다른 업무를 맡은 구성원이 교류하는 기회가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화가 기술과 고객 현장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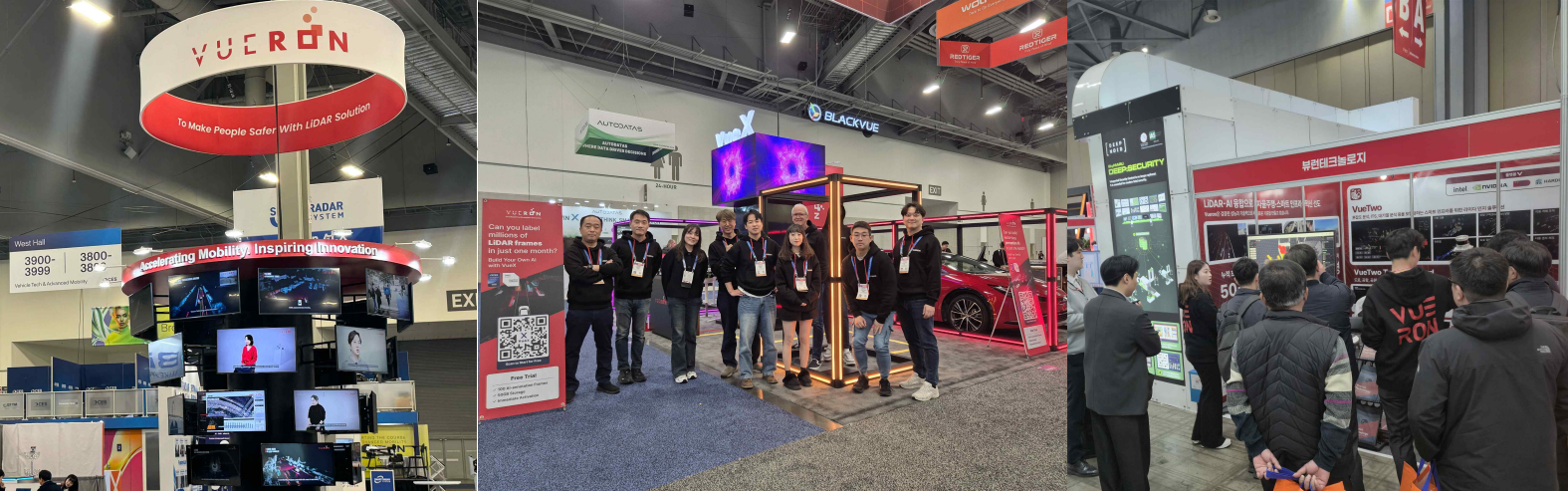
기업가로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인물이나 경험은 무엇인가요?

한 사람을 꼽기보다는 두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시장에 도전해 온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을 함께해 온 동료들입니다.

뷰런은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목표로 CES 등 글로벌 전시회 꾸준히 참가해 왔습니다. 처음 해외 무대에 섰을 때 뷰런은 대부분의 방문객에게 낯선 한국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같은 기술을 소개하더라도 국내에서 통하던 설명이 해외 고객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았고, 이미 이름이 알려진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짧은 시간 안에 뷰런의 차별점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소개하는 방식부터 바꿨습니다. 성능을 나열하기보다 고객이 겪는 문제에서 출발해 뷰런의 기술이 무엇을 해결하는지를 보여주곤 했고, 전시 이후에도 만난 기업들과 대화를 이어가며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해마다 참가를 거듭하며 뷰런을 기억하고 먼저 찾아오는 고객과 파트너가 늘어났고, 글로벌 수상처럼 외부의 인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쌓은 경험이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동시에 글로벌 기준에서 무엇을 더 갖춰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 도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함께한 동료들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합류해 준 초기 구성원들은 정해진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각자의 전문성으로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좋은 회사는 대표 한 사람의



(왼쪽부터) CES 2025, CES 2026, SECON 2026 뷰런테크놀로지 전시 부스 및 현장 시연

역량이 아니라 구성원이 자신의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동료들이 보여준 신뢰는 지금도 제가 더 나은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책임감의 근원입니다.

이 경험들은 기업가로서 제 기준이 됐습니다. 낮은 시장에서도 고객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10월 강릉 ITS 세계총회에서도 국내외 관계자들을 만나며 이 기준을 이어가겠습니다.

스마트시티 및 교통 기술의 발전이 뷰런테크놀로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스마트시티와 교통 기술이 발전할수록 현장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실제 운영에 연결하려는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차량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에 더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어디에 머물며, 어떤 조건에서 혼잡과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요구입니다. 이는 공간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뷰런의 인지 소프트웨어가 활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줄 것으로 봅니다.

사업적으로는 교차로와 도로의 교통 분석에서 공항·철도역의 혼잡 관리, 산업 현장의 이동·안전 관리로 고객 접점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인지 기술을 각 현장의 운영 목적에 맞춰 적용하고, 고객의 기존 관제시스템과 연결하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디지털트윈에서도 실제 공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뷰런이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자체 AI 개발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기회입니다. 완성된 Lookout을 공급하는 사업과 함께, 데이터 구축과 모델 개발·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도입 이후 기능을 추가하거나 다른 현장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기술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시에 고객이 요구하는 기준도 높아질 것입니다. 인지 성능뿐 아니라 시스템 연동, 현장 유지관리, 개인정보 수집 부담, 전체 구축 운영 비용까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뷰런은 현장 검증과 파트너 협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고, 공공과 민간 고객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교통·스마트시티 분야에서 부런이 집중하고 싶은 분야나 협력하고 싶은 과제는 무엇인지, 「Monthly ITS」 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스마트교차로와 보행자 보호구역, 터널·지하차도처럼 교통 운영과 안전 요구가 함께 있는 현장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차량 흐름과 보행자 이동을 함께 분석하고 기존 관제·신호 시스템과 연결해, 담당자가 현장 상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공항과 철도역, 항만, 대형 행사장 등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으로 적용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교통량과 인파를 각각 따로 보는 데서 생기는 정보의 단절을 줄이고, 공간 전체의 이동과 혼잡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산업 현장의 구내 이동과 작업자 안전 역시 같은 인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ITS 구축 기업, 관제 플랫폼 기업, 센서 및 장비 제조사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현장 운영자는 해결할 문제와 대응 기준을 제시하고, 시스템 구축 기업은 기존 인프라와 연결하며, 부런은 인지와 분석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도입 전에는 활용 지표와 연동 범위를 정하고, 실증 이후에는 운영 지속성과 다른 현장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협력을 기대합니다.

부런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열리는 강릉 ITS 세계총회에 부스를 마련하고 5일간 전시회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를 국내외 ITS 관계자들과 교통·공간 관제의 활용 방향을 논의하고, 실제 사업 현장에 맞는 협력 과제를 찾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Monthly ITS 독자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교통·안전·운영상의 과제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지, 기존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부터 함께 검토하며 시민과 현장 이용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